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2022.355호

노개고은 푸른 장수



다시 일상으로!

“지금 여기! 장수”

“다시 찾아온

제16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 관련소식 : P.18





04 최훈식 군수 인사말

새로운 장수

06 [기획특집] 2022년 장수군 결산 :
장수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0 [군정포커스]
- 소통으로 시작하다
 - 한눈으로 보는 민선8기 공약
 - 군정 포토뉴스

14 [새로운 변신] 새롭게 도약하다

도약하는 장수

- 18 [축제 소식]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 22 [장수가야 소식] 장수 육십령 고갯길
- 26 [치유의 숲] 숲에 안겨보자!
청정 힐링을 원한다면 치유의 숲으로!

행복 장수

- 28 [동네방네 이야기]
- 7개 읍·면 노인의 날 행사 진행
 - 읍·면 소식
- 31 [우리이웃 이야기]
- 장수러닝크루
 - 제1회 쉼밭들 산골마을 영화제 개최
 - 「참사람 권호석」 다큐멘터리 시사회 개최
- 34 [희망 소식] 장수골 청소년문화제 & 다함께 행복한
어울림 문화발표회 개최
-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기타 소식

36 [의회 소식] 제9대 장수군의회 소식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고향소식 받아주세요. 이사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우편_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논개고을 푸른장수' 전화_ 기획조정실 063)350-2068 메일_ jangsu7@korea.kr

발행일_ 2022년 12월(통권 제355호) 발행인_ 장수군수 발행처_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디자인_ 논개디자인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최훈식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검은 토끼의 해처럼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은 유례없는 쌀값 폭락, 계속되는 코로나 19와 경기 침체로 농산물의 소비 판매가 위축되는 등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장수군과 군민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화려한 문장과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지만 지면으로나마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백신 예방접종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해 장수 레드푸드를 전국 각지에 알리고 활력이 넘치는 장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2년은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만들기 위해 5개 분야에 70개 사업을 선정하여 알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등 5대 방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혁신군정상,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공무원이 변해야 장수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한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2022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2023년에는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을 이행하고 5대 군정 방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으로 미래농업 중심의 부자농촌,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과 행복한 일상을 위한 희망 복지, 공존하는 문화 관광이 있는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로 더 높이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다'는 뜻으로, 장수군이 하나로 화합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화합은 행복장수를 만드는 밑거름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최고의 동력입니다.

계묘년(癸卯年) 한해 장수군 발전을 위해 다함께 고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반을 바탕으로 군민이 잘살고, 군민이 행복한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장수군수 최훈식

2022년 장수군 결산

장수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22년 임인년(壬寅年)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하고 있다.

지난 7월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군정지표로 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달려온 장수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

등 5대 군정방침을 바탕으로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장수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2022년 하반기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

일시_ 2022. 8. 19.(금) 13:30

장소_ 장수읍사무소 회의실(2층)



✓ “군민 불편 적극 해결” 군민과의 대화 호평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방침으로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7개 읍·면 군민들과 소통의 장을 가졌다. 부서별로 건의된 사항은 건의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빠르게 답변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건들은 즉시 처리해 군민들의 신뢰 향상에 기여했다.

장수군은 타기관 건의를 제외한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 266건 중 20건을 제외한 절반 이상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단기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며, 97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군민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행복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2023년에는 행복콜 승하차지를 마을회관 이외의 장소에 하차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수요응답형 시스템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문객, 판매액 증가” 제16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성공적 개최

제16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그동안 코로나19로 비대면 혹은 열리지 못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면 축제로 개최됐다. 축제는 34만여 명의 방문객을 동원하고 한우마당, 농산물 부스 등에서 약 34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성과다. 올해 방문객 수와 판매액의 증가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된다.

8 특히 장수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해 더욱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한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 각종 평가, 예산 확보 성과 돋보여

장수군은 올해 각종 평가와 예산 확보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면서 알찬 한 해를 보냈다. 2022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 수상,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올해 중앙기관과 전라북도, 민간에서 시행한 각종 평가 10개 부문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공간 정비 사업’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154억원을 확보하여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열었으며, 1988년 건축으로 노후화된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총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문제해결과 예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았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및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 ‘전북형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 ‘녹색자금 공모사업’,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선정 등 장수군 미래발전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실현 ‘착착’

최훈식 장수군수의 1호 결재사항인 ‘농산물안정기금 400억원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군은 지난 11월 조례개정을 통해 연간 20억원 씩 5년 간 농산물안정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연간 100억원 씩 총 400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군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거쳤으며 12월에는 읍·면별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지원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행복한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는 군정

장수군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눈길을 끈다.

12월에는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화를 위해 ‘장수형 찾아가는 복지신고센터’를 운영해 겨울철 어려움이 있음에도 사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민간기관 및 장수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인력을 동원해 시설별 신고센터와 읍면 마을별 현장접수 신고센터로 2023년 2월까지 운영된다.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단됐던 고향나들이 사업을 재개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소통으로 시작하다”

이청득심(以聽得心)

들음으로 마음을 얻는다.

귀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

허심탄회(虛心坦懷)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아무 거리낌 없고 솔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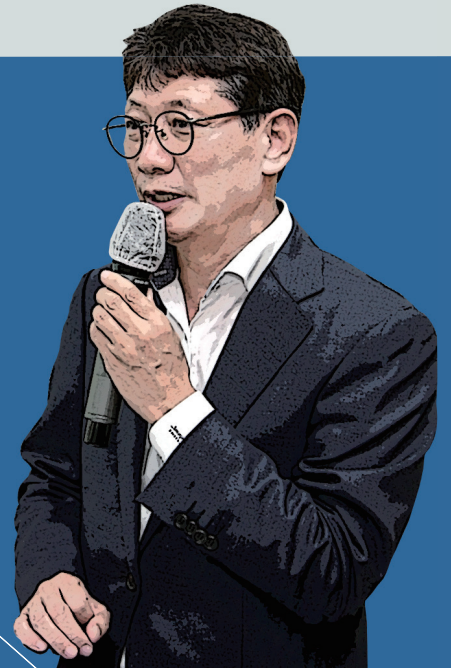
군민과의 대화

8월 16일 번암면을 시작으로 4일간 진행한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최훈식 군수가 직접 주민을 찾아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군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훈식 군수가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를 진행하며 가장 강조한 것은 행정의 변화와 소통이었다.

최군수는 “장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을 변화시켜 장수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에서 최훈식 군수는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해 군민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토론 시간을 늘려 군민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어서 “항상 현장 속에 답이 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군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 7. 18.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간담회

노인대학, 무료 경로식당 운영, 읍면 분회 운영과 관련된 애로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2022. 8. 2. 장수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수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2022. 9. 13. 농민회 간담회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안정 기금의 효과적인 운영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농민 수당의 지급 방법
▲소형농기계의 지원 확대 ▲농업기술센터 기능 개선 ▲벼 방제 및 신품종 도입 등 농업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2022. 10. 7. 다문화 가족 간담회

필리핀·베트남·중국·일본 나라별 4개국의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2. 11. 11.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코로나19 장기화,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 악화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눈에 보는 민선 8기 공약

장수군은 민선 8기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정책간담회를 실시해 실효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군민과 함께 만드는 공약”을 위해 군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01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 총사업비 10억원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 생활민원 기동팀 청년 맥가이버 팀」구성
- 원스톱(One-stop) 민원행정 서비스 적극 추진
- 군수·군민·공무원이 함께하는 활발한 의사소통 등 12개 사업

02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 총사업비 1,926억원

- 농산물 안정 기금 400억원 조성
- 장수 농군사관학교(임대 창업농) 운영
- 청년 농업인 임대 스마트팜 유치
- 레드푸드 육성을 위한 「레드연구소」 설립 등 18개 사업

03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 총사업비 447억원

- 가족화 사업 추진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장애인 복지시설 정비
- 이·미용권 천원 해결
- 65세 어르신 무릎 관절 수술 1회(평생) 300만원 지원 등 14개 사업

04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 총사업비 905억원

- 야생화 군락지 조성
- 천혜의 계곡을 활용한 한여름 예술문화축제 개최
-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공급 및 지원
- 문화예술인 지원과 네트워크 활성화 등 15개 사업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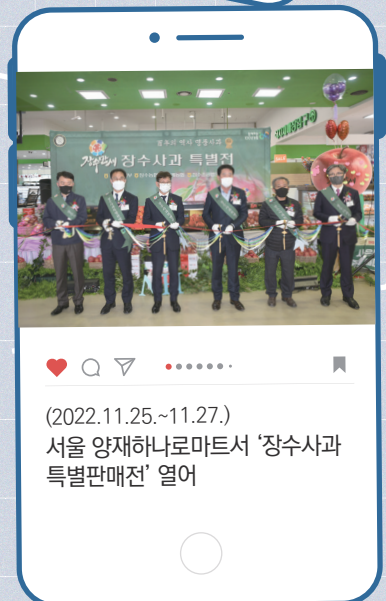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

— 총사업비 658억원

- 임기 내 교육예산 2배 확대
- 학생 연 20만원 바우처 지원
- 청년 임대 아파트 100호 공급
- 청년발전기금 100억 조성 운영 등 11개 사업

군정포뉴스



새로운 변신

새롭게 도약하다

장수군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새롭게 도약했다.

그동안 주민들이 바라던 공설장례식장이 개소되고,
남녀 격일제로 운영돼 불편했던 목욕탕 시설을 개선하는 등
행복장수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다.

2022년 장수군에서 새롭게 펼쳐진 모습은 어땠을까?





제1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장수종합경기장, 장수가야운동장, 장계 국민체육공원 운동장 3곳에서 ‘제1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수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장수군 축구협회와 한국유소년축구클럽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U-8(1·2학년부) 8개 팀, U-9(3학년부) 14개 팀, U-10(4학년부) 9개 팀, U-11(5학년부) 11개 팀, U-12(6학년부) 8개 팀이 참가해 총 50개 팀의 선수들과 관계자, 가족들 포함 약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내과 환자 진료 시작~!

그동안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전국적인 공중보건 의사 감소로 내과를 운영하지 못해 만성질환을 가진 군민들은 다른 민간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에 군민들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10월 12일부터 내과 진료를 시작했다. 내과 전문의로 채용된 최정매 전문의는 “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잉어, 거위와 수생식물이 공존하는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에 위치한 장수군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로 준공 18년째인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장계면 일원에서 발생된 3,200㎥의 생활하수를 한곳으로 모아 정화 처리하는 시설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 기초 시설이지만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됐다. 그러나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 생겼다. 고도화된 하수처리공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비단잉어, 거위, 수생식물의 좋은 서식지이자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으로 변모했다.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개소

장수군은 그동안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건립을 완료하고 10월 2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장수군 공설장례식장은 장수군 장계면 진장으로 1876 일대에 연면적 991.5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은 사무실을 비롯한 안치실, 입관실 등의 시신 처리시설, 2층은 접객실 및 조리시설 등 문상조문 시설로 조성됐다. 현대화된 장례시설을 통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될 예정이다.



장수누리파크 은하수길, 야간볼거리 눈길

지난 11월 장수군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해 장수누리파크 내 산책로에 은하수 길을 조성했다.

은하수 길은 조명 점등 시는 물론 소등 시에도 빛을 발해 밤하늘의 은하수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과 흥미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장수읍 희망마을 작은목욕탕 대변신

- 남녀 분리해 상시 운영, 주민들 불편함 해소 -

장수군이 기존 남녀가 번갈아가며 이용해 오던 작은 목욕탕을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남녀 각각 분리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목욕탕으로 탈바꿈했다.

목욕탕 운영시간은 기존과 같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장계면 논개골 행복나눔터, 계북면 행복나눔터 준공

장수군이 11월 18일에 장계면 '논개골 행복나눔터'의 준공식을, 24일에는 '계북면 행복나눔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논개골 행복나눔터'에는 아동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실내 클라이밍장, 문화사랑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졌다.

'계북면 행복나눔터'에는 아동돌봄 공간인 다함께 돌봄센터, 계북 출신 의병장인 박춘실 기념관, 작은 도서관, 문화카페,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으며, 그동안 계북면에서 부족했던 주민 활동공간이 마련돼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축제 소식

4년 만에

•
•
•

대면으로
돌아왔다!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4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개막행사는 28일 축제 둘째 날에
열려, 홍지윤, 나태주, 박서진, 진성,
김용임 등이 참여하는 트로트 페스
티벌로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프로그램-크레이지로데오



한우 곤포나르기

30일 축제 마지막 날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시간과 함께
일부 프로그램 등이 취소되거나
운영시간이 단축되는 등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축제에 약 34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우마당, 농산물 부스
등에서 약 34억원을 판매했다.

4년 만의 대면축제 어떠했나?

▲ 새롭게 선보인 '레드푸드쇼'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만큼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레드푸드쇼'가 새롭게 선보였으며 각종 이벤트와 포토타임 및 사인회, 칵테일쇼 및 시음회가 진행됐다.

유명 셰프와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교수, 개그맨 등이 출연해 음식을 만들고 시식과 더불어 이벤트를 펼쳐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 다양한 공연, 경연, 볼거리 등 풍성

축제 3일차인 29일에는 브레이브걸스, 윤중완 밴드, VOS 등이 출연하는 '레드콘서트'가 진행됐으며, 30일 폐막식에는 스위트소로우, 여행스케치 등이 출연하는 '낭만콘서트'가 진행돼 폐막의 아쉬움을 달랬다.

이 밖에 최태성 콘서트, 전국 한우 곤포나르기, 한우랑 사과랑 가요제, 장수가야문화제 공연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준비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Red 및 우수 농산물 판매전' 등

뛰어난 당도, 단단한 육질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장수 사과와 올해 대통령 추석 선물로 납품될 만큼 품질이 우수한 장수 오미자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축제는 장수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장수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에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장수사과 품평회', '장수한우 품평회' 등이 열려 장수사과, 장수한우의 우수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축제 대표 프로그램 ‘한우마당’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수한우마당! 고령지대에서 자란 장수 한우는 청정 고원의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음용수와 높은 일교차의 특성 때문에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 고소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전주, 서울, 경기, 부산까지 지역에 상관없이 오로지 장수 한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 축제장 곳곳에서 열린 볼거리, 체험거리

사과골프, 사과볼링, 깡통열차 등 누리파크에서 펼쳐지는 ‘가족체험 마당’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만한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농경문화 전통을 이어나가는 ‘깃절놀이’와 함께, ‘승마체험’, ‘호스페스티벌’, 사과와 한우를 주제로 한 ‘사과낙시체험’, ‘사과를 지켜라 CRAZY 로데오’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18개 체험프로그램이 축제장 곳곳에서 다양하게 운영돼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 2023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만나요~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4년만에 대면 개최된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전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내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성공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축제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해 모두가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기 축제위원장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만큼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내년에도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축제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 육십령 고갯길

글쓴이 : 이현석(장수군청 학예연구사)

육십령은 해발734m로 2007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호남과 영남을 잇는 주요 교통로는
국도 26호선이다.

이 국도 26호선 상에서 백두대간을
넘는 유일한 고갯길이 육십령이다.

육십령은 그 어원이 3가지 정도의 설이 있다. 첫번째로 장수에서 육십령까지 육십리 정도의 거리여서 라는 설. 다음으로 크고 작은 굽이가 약 60여 개여서라는 설.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도적 떼가 많아 고개를 넘기 위해 60명 이상이 모여 넘어야 한다는 설이다.

그중 인근에 자리한 대적골 철 생산 유적이 확인되면서 당시 철은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의 결정체로 그것을 노리기 위해 도적떼가 넘쳐났을 것이고 철의 무게감 때문에 60명 이상의 상단이 꾸려져야 교역이 수월했을 것이라는 학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금도 이 고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으로 백두대간 종주코스 중 하나이며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라이더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육십령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한반도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눈 자연 경계인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는 중요 고갯길로 호남과 영남을 이어주는 옛 고속도로이며 이를 통해 많은 역사 이야기를 지닌 곳이다.

아마도 육십령은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호남과 영남의 지리적 경계가 무시되었을 정도의 상생의 바람이 부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동해바다에서 채취하기 어려운 소금을 사러 이 백두대간을 넘어 호남 서해안으로 오고 갔을 것이며 철을 구하러 왕래했을 것이다.

그 근거로 장수 지역에 자리한 주요 고갯길에 자리한 산성과 봉화 유적들을 들 수 있다. 산성과 봉화는 주변을 관방하기 위한 중요 유적지이다.

언제부터 역사의 소외지역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대 사회 장수의 모습은 매우 역동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토록 중요한 유적이 자리하고 있으며 장수군과 함양군에 걸쳐있는 육십령 고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야 할 곳이다. 최근 이 일대를 역사 전문가뿐 아니라 많은 관련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또한 옛길과 역사 문화자원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백두대간권 종합발전 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초광역권 가야문화권 종합발전 계획”에 육십령이 포함되었다.

장수군도 육십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최근에는 이 일대를 “산림 정원화”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였다.



육십령이 누렸던 과거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했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란 사실
이다.

당시 영남 사람들이 험난한 백두대간을 힘들게
올라 호남지방을 처음으로 접하는 곳이 육십령
이다. 낯선 곳을 처음 방문할 때 가지는 기대감과
경계심을 분명 그곳에서 느꼈을 것이며 이러한
사유들로 육십령은 주목된 곳이었을 것이다.
옛 가야를 떠나 삼국시대 신라, 백제와의 교류
와 소통의 장, 그리고 각축장 이런 단어들로
육십령을 소개하기 부족하지만 육십령이 품은
역사문화 이야기는 반드시 알려져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곳을 다시 돌아보고 여러 가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필요성이 높다. 육십령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보다 우리 군의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할 소중한
지역이자 역사문화자원이다.

장수군민이라면 익숙한 육십령 고개를 모두가
다시 찾아 웅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둘러보고
어제와 오늘을 담아 내일을 준비했으면 한다.



숲에 안겨보자! 청정 힐링을 원한다면 치유의 숲으로!



녹색의 산 능선이 굽이굽이 이어져 있고,
그 끝자락으로 피톤치드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
일반인 이용료는 5,000원(장수군민 무료)이지만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전북 장수군 와룡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치유의 숲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여러 질환을 야기한다.
장수군은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해
치유센터에서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의 숲으로 떠나보자!



내 스트레스지수가 궁금하다면? 치유센터로!

장수 치유의 숲에 산책로만 있는 건 아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곳! 치유센터가 있다. 치유센터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향기 치유실, 건강 치유실, 명상 치유실 등이 조성돼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열치료, 반신욕, 차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한, 가족, 직장인, 노인, 청소년 등 일반 프로그램과 부부, 임산부, 중년 여성, 감정노동자 등을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용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와룡자연휴양림 이용객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장수 치유의 숲.

코로나19와 바쁜 일상에 지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장수 치유의 숲을 방문해 힐링해보면 어떨까?

자연이 주는 휴식, 와룡자연휴양림

장수읍에서 천천면으로 향하다 보면 마을을 따라 가로수가 예쁜 길이 나온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한참 오르고 오르다 보면 넓은 와룡호수가 가슴을 탁 트이게 하고, 호수를 지나 좀 더 올라가면 울창한 숲이 우거진 '와룡휴양림'이 나온다. 장수 치유의 숲이 조성된 와룡휴양림은 장수 팔공산 자락에 안겨 있다. 때로는 엄마 품처럼 포근하게, 때로는 오래된 친구처럼 정답게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장수에서 만나는 힐링체험, 치유의 숲

장수 치유의 숲은 장수군의 청정 산림자원이 주는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는 곳으로 이곳에는 치유센터가 조성돼 있다. 2017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치유의 숲에는 무장애데크로드(0.4km), 테마숲 3개소, 치유숲길(4.95km) 등이 갖춰져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숲속 산책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 무더운 한여름에 부담 없이 걷기 좋은 길이다.

옴시롱감시롱길, 깔끄막길, 모시내길, 고물고물길, 솔찬한길, 오매오진길, 따따부따길 등 전라도 사투리를 이용해 만든 장수 치유의 숲길에는 저마다 특징이 있다. 가파른 길인 깔끄막길, 마실가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모시내길,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걷는 따따부따길까지 저마다의 길 따라 상쾌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

〈치유의 숲 안내〉

운영기간

연중운영(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치유프로그램 운영 : 2회/1일
(10:00~12:00, 14:00~16:00)

오시는 길

전북 장수군 천천면 비룡로 632
와룡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전화번호

063-353-1405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 7개 읍·면 노인의 날 행사 진행

지난 10월 지역 곳곳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가 진행됐다.

대한노인회 전북 장수군지회는 10월 4일 변암면분회를 시작으로 6일 계남면분회, 7일 계북면분회, 11일 장수읍분회, 12일 산서면분회, 14일 장계면분회, 17일 천천면분회까지 분회별로 제26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

7개 읍면에서 진행된 행사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화합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됐다. 풍물단 공연, 트로트 공연,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고, 감사패 전달로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보내며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훈식 군수는 “우리나라 발전과 번영은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며 “어르신들이 어느 때보다 흥겹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읍·면 소식



산서면

9·28 향토수복 전몰자 추모제 거행

제36회 9·28 향토수복 희생 호국영령 추모제가 9월 28일 오전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향토수복기념비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6·25전쟁 당시 지역주민을 수호하다 희생된 고(故) 이완기 경찰관 등 15위의 호국영령들에 분향 헌작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장수읍

장수읍 지사협 “장수(長水) 장수(長壽) 건강음료 지원 사업” 전개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기완, 민간위원장 송재기)는 7월부터 10월까지 “장수(長水) 장수(長壽)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위기 상황과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독거노인 3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전문업체의 전문 배달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음료 전달 및 안부를 확인했다.



번암면

번암면 & 거제시 일운면 주민자치 교류

장수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소순배)가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10.27~30.) 중 거제시 일운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여철근)와 자매결연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거제시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했다.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향후 거제시 일운면 행사에 맞춰 장수군 특산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계면

장계면 & 회원 1동
자매결연기
직거래장터 개최

2022년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춘원)와 장계면(면장 이광춘)은 10월 6일 자매결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해 창원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시세로 판매하고 시식 코너도 운영하여 창원시민들에게 안전한 장수군 특산물을 알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그 결과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계남면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서
직거래장터 운영

장수군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류명용)가 11월 17일 자매결연 맺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장수군 특산물인 사과, 한우를 비롯한 고구마, 서리태, 팥 등 농가들이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50여 개 품목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천천면

천천면 6.25 참전용사비 및
공적비 정비사업 실시

천천면은 천천면 봉덕리 국도변에 위치한 6·25 참전용사비 및 공적비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토공으로 되어 있는 참전용사비 주위에 파쇄석을 포설하고 철근콘크리트로 유실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잡목 및 잡초 발생을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했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및 공적자에 대한 예우와 지역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북면

서울 치유하는 교회,
계북면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펼쳐

계북면 일대에서 따뜻한 나눔활동이 펼쳐졌다. 서울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대표 김의식 목사) 청장년 150명은 지난 7월 26일, 27일 이틀간 장수군 계북면 일대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미용봉사, 건강마사지, 무더진 칼, 가위, 낫 수리 봉사를 펼쳤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12가정을 방문하여 도배·장판을 교체해주는 등 농촌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장수청년공동체 |

“장수러닝크루” (JANGSU RUNNINGCREW)

제1회 장수트레일레이스 개최

‘장수의 산과 계곡, 자연을 만끽하며 달려보아요 : Stay wild, Enjoy nature!’
“와~~~!!!” 참가자들이 피니시라인을 통과하는 순간
힘찬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장수러닝크루는 러닝을 기반으로 한 장수 청년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청년들이 주도해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운동을 통한 ‘나다운 삶’,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9월 24일 장수청년공동체 ‘장수러닝크루’가 주최한 ‘제1회 장수트레일 레이스’가 장안산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장수한누리전당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마봉산~활공장~큰골봉~백운산~범골봉~장안산~지실가지를 경유해 다시 한누리전당 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총 38km의 코스로, 누적 상승고도 2,803m, 제한시간은 11시간으로 구성됐다.

포장되지 않은 길, 산, 들 자연을 달리는 ‘트레일러닝’ 대회로 세계 7개국(한국, 미국, 호주, 이란, 일본, 필리핀, 짐바브웨)을 비롯해 전국 각지 트레일러너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해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노명진(5시간09분44초)씨가 김현자(5시간22분27초)씨가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장수러닝크루는 그동안 마을달리기 및 플로깅(쓰레기 줍기) 활동, 로컬브랜드 협업을 통한 지역상품 홍보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1월에는 행안부 우수 공동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수상했다.

장수러닝크루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장수에 정착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최 : 장수가야산촌살이 X 끄트머리국제마을영화제

1회 Supbatdeul mountain village Film Festival 1st

썰밭들산골마을영화제

2022. 10. 13. WED - 10. 16. SUN

일시	13일(목)	14일(금)	15일(토)	16일(일)
16:00-18:00	이탈리아 시몬에(Simone Cherciore) (어디에 있나요?) 단편	헝가리 감독들(Gabriel Bacsai) (레몬이벤트) 단편	미국 감독들(Mike Smith) (나와, my mother and I) 단편	미국 감독들(Mike Smith) (나와, my mother and I) 단편
	한국의 로컬로컬과 잇다 (개막작) 한국의 마을공동체와 헝가리,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로컬영화의 글로벌 네트워크 시간 (축하공연) 양원석(로컬가수)	헝가리의 시골마을을 이야기하다 (마을영화) 헝가리 가브리엘(Gabriel Bacsai) 감독 한국의 저주목촌마을 영화주요는 마을영화의 생명 (축하공연) 진흥(비올리스트)	러시아의 문화로 여행하다 (마을영화) 러시아 감독들(Mike Smith) 감독 한국의 저주목촌마을 영화주요는 마을영화의 생명 (축하공연) 양원석(로컬가수)	미국 감독들(Mike Smith) (나와, my mother and I) 단편 (축하공연) 양원석(로컬가수)

제1회 썰밭들 산골마을 영화제 개최

썰밭들산골마을영화제(집행위원장 하영택)와 끄트머리국제마을영화제(집행위원장 신지승)가 함께 기획, 운영하는 '제1회 썰밭들 산골마을 영화제'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장수가야산촌살이 펜션에서 열렸다. 썰밭들 산골마을 영화제는 도시 중심의 국제영화제와는 다르게 마을과 로컬이 중심이 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헝가리, 이탈리아, 캐나다 감독들과 한국감독,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마을 중심의 자발적인 행사이다.

OTT 시대에 극장과 영화제로부터 먼 거리에 있었던 장수군 썰밭들마을 주민들 중심의 독특한 마을영화제로 썰밭들 마을이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스스로 모색해 보려는 문화예술적 시도로 평가받았다.

『참사람 권호석』

다큐멘터리 시사회 개최

지난 11월 28일,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및 쉼밭 들마을 후원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참사람 권호석』의 무료시사회가 장수 한누리영화관에서 열렸다.



『참사람 권호석』은 주인공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가치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주변에서 그를 꾸준히 지켜본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장수군에 거주하는 쓰레기 줍는 거리의 천사인 주인공 권호석씨는 86세 나이로 일주일에 세 번씩 신장 투석을 하면서도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하며, 오늘도 거리로 향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에 참사람의 희망과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이다.

베푸는 마음도 아름다운
장수 거리의 천사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장수의 미래” 장수골 청소년문화제& 다함께 행복한 어울림 문화발표회 개최

11월 12일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하루였다. 장수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는 ‘장수청소년 별별꿈 스테이지’라는 부제로 장수골 청소년 문화제가 열렸다. 같은 날 소공연장에서는 장수군가족센터 JSDS(장수댄스스타)팀과 어린이뮤지컬팀 콜라보레이션 공연인 ‘다함께 행복한 어울림 문화발표회’가 열렸다.



청소년문화제

장수골 청소년문화제는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키트 배포와 온라인 문화제로 같음됐다가 2022년 ‘장수청소년 별별꿈 스테이지’라는 부제로 다시금 대면 행사로 부활했다.

장수 청소년들은 페마스크 키링 만들기, 빼빼로 만들기, 장수학생연합회 홍보 등 직접 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며, 계남중, 장수중, 장계중, 백화여고, 장수고 학생들은 노래, 댄스, 밴드 공연으로 문화제의 열기를 더했다.

문화제는 총 32개의 부스가 운영됐고, 장수 출신 아티스트들의 축하공연이 있었으며, 장수골 청소년 문화제 최초로 e-스포츠 결승전이 현장 중계되기도 했다.

다함께 행복한 어울림 문화발표회

11월 12일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군가족센터 JSDS(장수댄스스타)팀과 어린이뮤지컬팀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회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JSDS(장수댄스스타)팀의 축하 댄스공연을 시작으로 한국무용과 창작무용을 통해 600년 역사의 장수향교 서원문화를 배우고 춤의 무대를 선보였다.





희망2023나눔캠페인



- 추진기간 : 2022. 12. 1(수) ~ 2023. 1. 31.(월) (2개월)
- 목 적 : 경제 위기로 어려워진 우리지역 이웃 지원 등
- 대 상 : 각 기관·사회단체, 주민 등 모든 군민
- 모금방법 : 기관·사회단체, 주민, 공무원 등 자율 참여
- 주 관 :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접 수 처 : 도내 언론사 및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관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전북일보	전북, 농협	505-13-0344512 301-0116-9695-7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	063-282-0606
전북도민	전북, 농협	505-13-0344520 301-0116-9691-21		063-282-0606
전라일보	전북, 농협	505-13-0344538 301-0116-9698-81		063-282-0606
새전북신문	전북, 농협	505-13-0344546 301-0116-9704-81		063-230-5712
KBS전주	전북, 농협	505-23-0318193 301-0037-7032-81		063-270-7123
전주MBC	전북, 농협	505-13-0344562 301-0116-9701-71		063-220-8152
JTV전주	전북, 농협	505-13-0344570 301-0133-2348-51		063-250-5214
공동모금회	전북, 농협	505-13-0311109 508-01-042675		063-282-0606

제9대 장수군의회 소식

□ 제9대 장수군의회 개원과 전반기 원구성

○ 의장 장정복, 부의장 이종섭, 행정복지위원장 최한주, 산업건설위원장 김광훈



장수군의회는 7월 1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장수군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장정복, 부의장에는 이종섭,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최한주, 산업건설위원장에 김광훈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 장수군의회 회기 운영 : 7회 개회, 52건 의결

○ 조례안 31건,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5건, 의견청취 1건, 결의안 1건



장수군의회는 2022년 7월 1일에 제3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1월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31건,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청취 1건, 결의안 1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상임위원회 활동

○ 행정복지위원회 : 34건 심의·의결(조례안 21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5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한주)는 총 6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등 총 34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 산업건설위원회 : 17건 심의·의결(조례안 10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광훈)에서는 총 6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 의원 발의 조례 : 5건 의결

- 장정복 의원 :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 수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 이종섭 의원 :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김광훈 의원 :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유경자 의원 :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위원회 운영과 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에서는 9월 30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정액 대비 492억원이 증액된 4,891억원으로 의결하였다.

○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 읍·면 10개 사업장



장수군의의회는 제343회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수)를 열어 조사 결과로 ‘관광지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신소득작물 개발 및 기존작물 활용사업 모색, 환경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환경산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수립’ 등 개선요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101건에 대한 시정, 처리, 개선 요구



장수군의의회는 제3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을 열어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전 부서와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총 101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처리,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 군정 질문 및 5분 발언



장정복 의원은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2.9.30)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한 장수군의 지역별 고른 발전을 위해 지역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발굴·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주 의원 / 5분 발언

최한주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2.8.31)에서 5분 발언에 나서, 극심한 이농현상과 대형마트 등의 발전 등으로 큰 위기를 맞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서울의 밤도깨비야시장과 같이 장계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상인이 주도하는 시장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김남기 의원 / 군정질문

김남기 의원은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8.31)에서 “농자재 가격과 물가가 폭등하고 있지만 쌀 소비량 감소와 정부의 미흡한 시장격리로 쌀값이 폭락해 농가의 시름이 깊다”면서 “벼 자체 수매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군에 요구하였다.



김남수 의원 / 5분 발언

김남수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2.11.2.)에서 천천면 연평리와 계북면 월현리 일원의 특이자원을 연계한 부연마을 폐광 개발과 연평리 하천 수상레저 활성화, 월현리 ‘백불랑 요한 주교 피난굴’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장수군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에 기부하고 혜택받자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 ♥ 시행일시: 2023. 1. 1부터 시행
- ♥ 기 부 처: 개인(법인은 기부 불가)
- ♥ 기 부 처: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

기/부/혜/택

1.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시 16.5%)



※고향사랑기부금은

복지, 문화, 예술 등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답례품을 활용해 지역경제도 살립니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판로 확대

